남의 소리를 듣고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 19면에서 계속

더니 부인이 있다 하는 소리가 "내가 임신하기 전에 태몽을 꿨을 때 어느 스님이 면경 조그마한 걸 하나 갖다가 깨끗이 닦아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갖다 주더라. 그러니 부처님이 갖다 주신 애는 틀림없다." 라고 자기 영감한테 얘기를 급하게 하면서 "아들이 죽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빨리 대답하시라." 하고 독촉이 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실 부인 말 들어 보니까 죽는 거보다는 낫지." 하며 쾌히 응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응낙을 하고 보니까 얼마 안 있더니 숨을 돌리면서 애가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틀 사흘 만에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병이 들었던 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닷새 후에 올 테니 아들을 달라고 그러고는 갔는데, 꼭 닷새 후에 스님이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기르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공부도 하고 나무도 하고 시키는 대로 그저 빨래도 했습니다. 그 도령의 법명은 '각성'이라고 하고 법호를 '벽암'이라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벽암 행자가 말입니다, 처음에 행자로 들어가서 조그만 게 나무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일은 시키면서 글공부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이 20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제 앉아서 뭐,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절 생활을 한 지 근 10년이 됐을 때 스님이 사흘 저녁을 내리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경(經)을 내놨습니다. 무슨 경을 내놨느냐.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설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가슴에 탁 이렇게 닿질 않고 자꾸 튕기더랍니다. 그러니깐 스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자꾸 튕기니까 말입니다. 스님을 붙잡고 또 사흘 밤낮을 내리 금강경 한 권을 읽고, 화엄경 한 권을 읽고, 또 법화경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깐에는 그걸 다 읽고 나서는 그 이치는 알겠고 하니까 이제 떳떳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사흘 후 그 스님은 그냥 열반을 하셨어요. 그랬으니 그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엉 우니깐 어느 노스님 한 분이 오시더니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백성이 풍비박산이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될 테니 내려가 보거라. 무술도 배우고 활도 쏘는 걸 배우고 다 배웠으니 나가서 나라를 건지는 데에 다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한양엘 가서 돌아보니까, 그때 마침 무술 대회가 있다고 하더랍니다. 무술 대회에 가서 무술을 하는데 어떠한 아주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오랑캐의 장군으로 신분을 숨기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 오랑캐의 그 장군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나무칼로 하다가 나중엔 진짜 칼을 달라더라는 겁니다. 진짜 칼로 둘이 싸우다가 이 벽암 스님이 그냥 노리니까 아, 칼도 떨어뜨리곤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스님을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와서 무술 시합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서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술 시합에 이겨서 장원을 했습니다. 장원을 해 가지고서, 그 뭡니까? 또 잊어버렸죠. 광해군!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랑캐가 앞으로 느닷없이 쳐들어올 테니 성도 쌓아야 하고 군사들에게 무술도 가르쳐야 하니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오." 하니까 "이렇게 평화스러운데 무슨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무슨 성을 쌓고, 무술을 가르치고 그러느냐." 하고 아예 절레절레 흔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만 먼 데로 도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다 버리고 말입니다.

떠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불심으로 무심종을 삼지 못했고, 무심법행으로서의 행을 하지 않았으며, 분별을 끊지 못하고 너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나라를 구하러 내려가거라."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려갔죠. 간단히 얘길 해야지 이거 길어서 안 되겠군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그때는 인조대왕이 광해군을 내쫓고 턱 왕좌에 앉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하니까 옛날 그 직을 그냥 주면서 "그럼 빨리 도처에 성을 쌓고 무술을 가르치고 하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지금 저 남한산성을 제일 먼저 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인조대왕은 그리로 피난을 시켰지만 중전이나 다른 그 일가족은 다 딴 데에 있어서 피난을 못 시켰죠. 그러다가 오랑캐가 다 쳐들어와서는 거기 성도 그냥 에워싸고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모두 파김치가 돼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벽암 스님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먼저 말을 타고 나가면 사기가 돋궈지지 않을까 해서 말을 타고 그냥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만난 사람이 무술 대회 할 때에 만난 그 사람이더랍니다. 그 사람이 창이나 칼로 어떻게 해야 할 텐데, 딱 서서는 "스님!" 하더랍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는 스님한테 내 목숨을 건졌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니 내가 군사들을 다 몰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스님은 돌아가시오."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군사들을 철퇴시키고 그냥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들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왕은 피난을 시켰지만 왕의 일가족이 다 붙들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만 탁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그 스님께서 불심으로 무심종을 삼으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도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닿질 않은 겁니다. 무심종을 삼으랬고 또 "무심법행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너의 모든 백성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또 중생들한테 전부 불씨를 심어 줄 수 있느니라.", "마무리가 잘될 것이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향이 깨끗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단 말입니다. "아하, 여기에 있는 걸 그랬구나!" 하고 종적을 그냥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 이 말씀을 해 주신 스님이 이 얘기를 마치시면서 끄트머리에 하시는 소리가 "얘야! 그 불심을 무심종으로 삼을 때에 전 우주가 들리느니라. 또 무심법행을 할 때 전 우주가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전부 같이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것이 법으로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실천궁행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하는 소리가 "문이 많아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 문이 많아서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서 찾기 어렵고, 이건 무슨 연고냐?" 이거야. 그것도 관문일 수도 있고 바로 공안일 수도 있고 화두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그쯤 해 두고요.

그러면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많아서 문 찾기 어려운 그 도리를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연고로 그렇게 되는지? (대중 …) 그럼, 여러분은 모두 도인이니까 그대로 아시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도인일 수도 있고요, 이게 말을 잘못하면 어쩌나 해서 못 하는 수도 있고요, 허허. '분별을 놓으랬는데 말이야.' 하고선 못하는 수도 있죠. 참 이 선도리(禪道理), 이것은 우물쭈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들이대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안이 서야 당당하고 떳떳하게 깊은 주먹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이치가 되겠죠. 그럼 그건 그대로 두고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예전에 백장 선사가 이렇게 모아 놓고 설법을 하고 마치셨는데 노인 한 분만 안 가셔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스님네들 아니시더라도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건데 그 뜻은 또 진짜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노인네가 안 가요. 노장이 안 가고 있으니까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장이 하는 소리가, 자기는 과거에 이 절의 주지로 있던 사람인데 어느 학인이 와서 "이 불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 줬다는 거죠. 그 노장 스님이 주지로 있을 때의 얘기예요. '인과에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대답 하나가, 불락(不落)이라고 한 대답 하나가 잘못되어서 아, 이거는 오백 생을 글쎄, 여우 몸을 받아 가지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님, 날 좀 살려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서 살리느냐." 하니까 "내가 그대로 스님한테 여쭐 테니 스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대로 묻더랍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대로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과에 매(昧)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이러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어둡지 않다,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끄달리지 마시라' 이런 거 얘기했죠. 즉 여여하다는 얘기죠. (중략)

그렇다면 지금 불락(不落)이냐 불매(不昧)냐? 즉 말하자면 인과에 떨어지느냐, 인과에 끄달리지 않느냐? 그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공안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공안 아님이 없고 관문 아님이 없어. 문이 없는 까닭에 전체가 문이지.

그럼 그건 그렇게 제껴 놓읍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었다. 가섭존자가 웃었다. 이런 것도 관문이 되고, 그것도 화두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공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가섭도 없고 꽃도 없고 그 든 분도 없다면 뭐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바로 두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걸 이론으로만 알고 그 도리를 모른다면, 아무리 옆으로 꿰고 위로 꿰고 바로 꿰고 이래도 그건 학설이요, 이론이요, 부처님 제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보살행을 하며 어떻게 실천궁행의 법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망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모든 것을 놓는 데서
> 나도 없고 분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고 고집하고 저렇게 분별하고 고집한다면
> 언제 인간 세상을 벗어나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0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8563-2356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